

요엘 2 장.

➤ 들어가기

본 장은 1 장에 기록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한 땅을 보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며,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재앙 이전에 누리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신약시대에 있을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다가온 여호와와 (심판)날에 대한 경고 (1-11 절)

- 1)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백성들을 떨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절)
 - 우선 나팔을 부는 행위는 전쟁을 알리기 위한 경고나 예배와 축제를 알리는 때에 사용되었음!
 - 여기서는 전쟁을 알리기 위한 경종으로 사용됨!
 -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와 날’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심!!
 - 참고로 ‘여호와와 날’에 해당하는 히/원='욥 아도나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구원과 승리의 날로 인식하며 소망하였음! (암 5:18).
 - 특히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와 날’이 오면,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보호하며 도와줄 것이라 생각함. (Kline)
 -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와 날’은 이와는 정반대로 ‘참혹한 심판의 날’로 선포되었음!!

2) 그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와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 (2-11 절)

- 우선 ‘요엘’ 선지자는 당시 수많은 메뚜기 때가 온 하늘을 덮으며 이스라엘 땅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고 사라진 상황을 비유로 들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적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여호와와 날’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묘사함!!
- 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 (2 절)
 - 1 차적으론 당시 수많은 메뚜기 때가 하늘을 덮은 상황을 묘사한 말로, 궁극적으론 ‘여호와와 날’이 심판의 날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임을 묘사한 것!
 - ②.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2 절)
 - 이것은 새벽에 떠오른 해가 순식간에 산꼭대기로 올라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적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임할 것을 묘사하신 것!
 - ③. ‘불이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던 시온과 이스라엘 땅을 황폐한 들로 만들 것! (3 절)

- 이것은 당시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한 것처럼 적군들로 인해 이스라엘 온 땅이 황폐해 질 것을 묘사한 것.

④.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이 모습을 말과 기병, 병거들로 무장한 강한 군사들이 줄지어 산 꼭대기를 넘으며 싸운다고 묘사함! (4-5 절)

- 이 또한 당시 수많은 메뚜기 때들이 빠르게 산꼭대기를 넘으며 온 땅을 황폐하게 했듯이, 적군들이 온 땅을 빠르게 황폐하게 할 것을 묘사한 것!

⑤.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고, 낮빛이 희어질 것!! (6 절)

- ‘질리다’의 히/원, ‘야힐루’는 ‘몸서리치며 괴로워하다’는 뜻
- ‘하예지다’의 히/원, ‘파아르’는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뜻.

⑥. 7-9 절을 통해 요엘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메뚜기 때처럼 온 이스라엘 성을 정복할 적군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함!

- ex: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 1 차적으론 당시 메뚜기 재앙이 이처럼 임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할 적군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수 없음을 묘사!!

⑦.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땅은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것!!’ (10 절)

- 이것은 곧 장차 임할 ‘여호와와 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경험한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임을 묘사한 것!!

⑧.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실 것’이라 선언! -- => 특별히 11 절 주목!!

“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 그럼 여기서 ‘그의 군대’는 누구를 말할까? _____.

-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앗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의 적군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2. 이렇게 회개하라! (12-17 절)

1)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절)

- 참고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라도'에 해당하는 히/원, '웨감아타'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함!!

- 이것은 곧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으며,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일깨워주는 것!!
- 특별히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
 - 13-14 절 주목!

“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이라고 했음. (롬 9:22)

2)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13-17 절)

- ①. ‘옷을 찢지 말고 _____ 찢으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 (13 절)
 - 하나님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슬픔과 애통함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게 하셨음!
 - 그런데 저들은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행위로 그치기 시작함!
 - 특별히 '마음을 찢고'의 히/원, '키르우 리바브켄'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내적 변화를 요구한 것!
- ②.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할 것! (15-16 절)
 - 우선 ‘거룩’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었음을 주목!!
 - 그런데 두 번째 ‘거룩’은 ‘정결의식’을 가지라는 의미!!!
 - 곧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모임,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하고, 정결의식 곧 제단 앞에서 먼저 손을 씻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
- ③. 어린 아이와 노인, 제외 없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 다 성회에 참여할 것!! (16 절)
 - 특별히 어린이와 젖 먹는 아이는 물론이고,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심!!
 - 참고로 율법은 아내를 얻은 신랑은 1 년 동안은 군대도 가지 말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허락했음. (신 24:5)
 -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을 뛰어넘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성회에 참여하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것!!
 -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는 일은 결코 가족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④. 끝으로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 (17 절)
 - 참고로 ‘낭실’은 성전의 동쪽 출입구를 의미하고, ‘제단’은 성전 뜰에 위치한 번제단을 가리킴. 따라서 ‘낭실과 제단 사이’는 그 중간 뜰로 보통 '제사장의 뜰'이라 불리던 곳.
 - 제사장들은 주로 이곳을 묵상과 기도의 처소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

- 그럼 그 곳에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나?
 - a.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 b.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 c.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3. 회개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18-27 절)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회개한다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절)

-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심!
 - 여기서 '극진히'의 히/원 '와예카네' 는 '열심히' 혹은 '질투하며'란 말로, 그만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 참고로 새번역 성경은 '사랑하신다'는 표현대신 '마음 아파하시고'고 번역.

2)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회복시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9-26 절)

- 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실 것!' + '다시는 이스라엘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 이것은 곧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대로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
- ②. 북쪽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멀리 쫓아버리실 것! (20 절)
 - 특히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렇게 되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를 것!'
 - 곧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적들을(앗수르/바벨론)를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
- ③. 하나님은 땅과 들짐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심! (21-22 절)
 - 참고로 '땅'에 해당하는 히/원 '아다마'는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에레츠'와는 달리 경작하여 생존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땅을 가리킴!
 -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풍요롭게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 특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나무들!!
 - 곧 이 나무들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
- ④. 하나님은 '시온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심! (23- 26 절)
 - a.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리시어 그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약속!
 -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 (렘 5:2).

- b. 특별히 메뚜기 때로(적국의 군대로) 입었던 피해 그대로 다 갚아 주실 것을 약속!!
 -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않고 다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분!!
- c. 그럼 저들이 '풍족히 먹으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것!

- 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시대가 될 것! (27 절)
 - 특별히 26 절 마지막과 27 절 마지막을 주목하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사용됨!!
 - 이것은 곧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만 살고자 결단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저들을 보호하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신 것!!'

4. 미래적인 구원의 약속 1. '성령강림에 대한 예언' (28-32 절)

- 1)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장차 내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28-30 절)
 - 우선 하나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심!
 - '그 후에' 라는 말은 히/원 '아하레이-켄'이란 말로, 문자적으로 '이것 후에', '그런 다음에'란 말로,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를 의미함!
 - 참고로 '누가'는 이 말을 '말세에'라고 번역하면서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하였음! (행 2:17)
 - 따라서 당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신약시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강림의 역사까지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
 - 그럼 하나님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 주신다고 했나요? _____
 - 이것은 남녀 노소, 빈부격차, 인종과 신분, 세대를 뛰어넘어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자녀들을 의미함!
- 2)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①.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 '장래 일, 꿈, 이상'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기 위해 사용!!
 -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 곧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하셨음!!
 -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
 - ②.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이적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날 것! (30 절)
 - '피와 불'에 해당하는 히/원, '담 와에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
 -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연상!!
 - 성령의 오심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의 시작이지만, 멸망 당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상징!!

3)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31-32 절)

- 요엘 선지자는 우선 여호와와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할 것’이라고 예언!
 - ‘제롬’은 해와 달이 이방 종교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이방 우상의 멸망을 선포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석!
 - 몇몇 종말론적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은 종말에 나타날 구체적인 자연현상으로도 해석!
 -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란 약속!!
 -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고, 옷을 찢지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드신 생각과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